

# 디자인 여정의 시작, 군산에서 발견한 풍경들

## Tracing Design Heritage in Gunsan A Journey Through Time and Space

저자 Author: 안마노 An Mano

안그래픽스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of Ahn Graphics

올여름 한국디자인사학회 근대 역사 유적 디자인 여행의 첫 장소는 서해안에 있는 군산이었다. 군산은 대한제국 주도 아래 근대적 항구 도시의 모습을 형성해 갔으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식 근대 문화가 활발하게 들어선 곳이다.

살펴본 곳에서 느껴진 근대 일본식 생활양식의 잔상은 생각보다 짙었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히로쓰 가옥),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등. 부두를 따라 들어선 박물관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은행, 일본 제18은행, 군산세관 건물이었던 곳이다. 지금은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호남관세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일행이 하룻밤 묵었던 '여미랑' 역시 일본 다다미식 가옥을 복원한 체험형 숙소였다.



[그림 1] 히로쓰 가옥과 여미랑 근처 서점 '마리서사' ©정승훈

바다를 배경으로 근대와 일제강점기 때 건물부터 일상적인 상가들, 아파트, 그래픽숍을 위시한 트렌디한 공간들이 어우러진 군산의 풍경은 독특했다. 일행이 주로 살펴본 구도심은 부두를 기점으로 바둑판 형식으로 구획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이는 오히려 자연발생적인 서울의 구도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공간 감각이다. 그런 까닭에 영화 촬영 장소로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232-233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 232233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특집 기획: 디자인 기행 Special Feature: A Short Design Field Trip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그림 2] 군산의 길거리 ©정승훈

사실 이 행사가 아니었다면 학회의 첫 디자인 여행지는 다른 곳이었으리라. 이튿날 방문한 「군산북페어」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김종업이 건축한 군산회관에서 열렸다. 첫 행사임에도 참가자와 방문객의 열기가 높았다. 이 도서전을 기획한 김광철 대표의 섭외력과 기획력을 엿볼 수 있었다. 부대행사로 열린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기까지의 여러 소규모 독립 출판 프로젝트를 망라한 섹션이 눈에 띄었다. 실험적인 출판물의 군집이 보여주는 광경은 이번 도서전이 보여준 활기로 우주배경복사 이미지와도 같았다. 군산북페어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그림 3] (군산북페어) 현장 ©정승훈



[그림 4] 이번 (디자인 여행)을 함께한 학회 회원들 ©정승훈

한국디자인사학회는 이후로도 정기적인 디자인 유산 답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여행을 통해 연구 공동체가 디자인사에 관한 폭넓은 관점과 영감을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